

나는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.

그러나,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. 나는 고교 2학
년때부터 친구와 담배를 피웠다. 담배를 피우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고, 그밖의 사람에게 영
향을 끼친다거나 하는 따위는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없다. 그것은 그 아이들의 사회나 부모
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. 그래서, 담배를 피우는 것을 텔레비전파위에서 방송을 금지하는
것은 필요가 없다. 그러나,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조금 다르다. 공공장소에 있
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게 원하지않는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. 그러
나, 나는 기본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각자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.